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 26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녹) 연중 제 26주일 (23. 10. 1.)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느님의 법을 따라 공정과 정의의 길을 걸으라고 촉구합니다. 죄인에게도 회개를 통하여 이러한 길이 열려 있으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는 오히려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미사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곳곳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청합시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에제키엘 예언서 18,25-28):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 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나?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26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27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28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 제2독서(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1-11):

형제 여러분, 1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2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3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4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5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6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

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8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10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11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 복음(마태복음 21,28-32):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28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애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렸다.

29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30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31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32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 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화답송

-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에 가난의 정신을 되새겨 주시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성자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의 주님,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인종과 성별, 장애와 나이, 신분과 외모 등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를 존중하며 참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3.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사회에서 소외되어 비인간적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제도 안에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으며 결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소서.
4.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와 함께하시어, 피조물 보호의 날에 한 다짐들을 기억하며 유한한 지구 자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수난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 성가 ♪

- 입당 : 17 (정의의 하느님)
- 봉헌 : 210 (나의 생명 드리니)
- 성체 : 162 (성체 성혈 그 신비)/504 (우리와 함께 주여)
- 파견 : 271 (로사리오 기도 드릴때)

공지 사항

♣ 본당의 날 미사

- 성경필사 :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필사본 성경을 완성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각 가정에 하느님 말씀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당의 날 미사 중에 필사본 성경을 봉헌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당의 날 행사(오라토리오 지하 강당)

- 12:30-13:30 미사 후 음식 나누기
- 13:30-13:40 신부님 축사
- 13:40-14:00 성당 역사 슬라이드 방영
- 14:00-16:00 추석 행사(구역별 제기차기, 닭싸움..)

♣ 성모회 묵주기도 봉헌

- 본당의 날을 맞아 성모회에서 본당 공동체 지향으로 묵주기도 280단을 봉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인공동체 가을 체육대회

- 일시 : 10월 14일, 토요일
- 장소 : Sport Village Assago
(Via Giuseppe di Vittorio, 20057 Assago)
- 작년 대회 1등 팀으로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임/회의

- 청년 구역 모임 : 금일(01일) 미사 후, 사제관

♣ 봉사자

	오늘 주일(1일)	다음 주일(8일)
제1독서	박광식 루카	윤다혜 아멜리아
제2독서	윤선재 가우디아	전민경 마리스텔라
복사	정상현 안토니오 강한 프란체스코	김익찬 암브로시오 강윤이 스텔라
계단·화장실	박광식 루카	윤다혜 아멜리아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90.21 • 교무금 € 0.00